

보도시점:

2024. 4. 8.(월) 14:00

배포:

2024. 4. 8.(월) 08:30

환경 보호와 장애인 지원,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...

- 국민권익위, 식목일을 맞아 전 직원 나눔행사 실시
- 기증 물품의 판매 수익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자립에 활용

□ 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 유철환, 이하 국민권익위)는 식목일을 맞아 탄소배출 저감의 일환으로 전 직원이 동참하는 나눔행사를 진행했다.

나눔행사를 통해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기증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다시 판매함으로써 상품의 생산·유통·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낮추고, 그 수익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자립에 활용된다.

□ 국민권익위는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증받았다.

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수거된 기증 물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업(굿월스토어*)에 전달되고, 판매 수익금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에 쓰인다.

* 굿월스토어: 기증품 판매를 통한 수익금으로 발달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(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운영)

□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“자원의 재사용을 통한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, 직원들과 함께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”며, “앞으로도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운영지원과	책임자	과 장	김영희 (044-200-7171)
		담당자	사무관	박영아 (044-200-7173)